■ 10월 치르는 광주시교육감 선거 누가 뛰나

현직 교육장 '2파전' 전망 속 '시민단체 후보' 가세 가능성

오는 11월6일로 임기 만료되는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의 후임자를 뽑는 '민선 4기 광주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지역 교육계는 이번 선거가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안순일 동부교육장과 윤영월 서부교육장의 '2파전'속에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내세운 '시민후보'가 가세한 형국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는 언제?=교육감 선거는 학교운영위원에 의한 간접선거로 치러진다.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8일 회의를 열어 후보자 등록 및 선거일 등 제반 일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선거일로는 현재 10월23일이 유력시되고 있다. 선거인 수는 3천400여명.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한 후보가 없을 경우 2차 결선 투표가 실시된다.

출마 예정자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이후 가능하다. 선거운동도 ▲선거공보를 통한 이력 소개 ▲선관위에서 정한 장소에서의 소견 발표 ▲언론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초청 대담 및 토론회 등으로 제한된다. 나머지는 모두 불법 선거운동이다.

◇누가 출마하나?=현재까지 출마 의사를 확실히 밝힌 사람은 ▲김창현 전 광주교대 총장 ▲초등 출신의 안순일 광주 동부교육장 ▲전교조 출신의 윤봉근 광주시교육위원 ▲중등 출신의 윤영월 광주 서부교육장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등 5명. 〈성명 가나다순〉

김창현 전 광주교대 총장은 교육계의 신망이 두텁고 지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광주교대 총장을 맡아 중앙정부에서 75억원의 예산을 유치했던 '대외적인 영향력'이 강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초·중등교육을 잘 모른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안순일 동부교육장은 친화력·포용력이 뛰어나 조직의 조화와 융합을 이끌 수 있고 교육에 대한 기획력과 통찰력이 뛰어나다는 게 지역 교육계의 한결같은 평가다. 그러나 초등교육 전문가로서 중등교육에는 다소 취약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윤봉근 시교육위원은 젊고 의욕적인데다 제5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이미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았다는 평이다. 하지만 최근 전교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전교조 출신이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윤영월 서부교육장은 시 교육감 선거 사상 첫 여성 후보로 기획력과 추진력이 뛰어나고 2004년 광주시교육청 첫 여성중등과장으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범한 성격이지만, 친화력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은 지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광주교대 총장을 역임하면서 국공립대학전국총장협의회 대표 등을 맡는 등 '전국적인 인물'이라는 게 강점이다. 하지만 이번이 두번째 교육감 선거 출마로, 다소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민후보'도 나올 듯=광주·전남 2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교육연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오는 20일 경쟁력 있는 '시민 후보'를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2~3명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교조는 따로 후보를 내지 않는 한편 '시민 후보'에 대한 자체 검증 이후 지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내부 의결절차를 걸쳐 지지후보를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공표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동·서부교육장 안순일·윤영월씨

前 광주교대총장 김창현·이정재씨

윤봉근 교육위원 등 5명 출마 밝혀

여고생 소방체험 광주 설월여고 2학년 학생들이 14일 광주소방학교에 입교, 로프 타기 등 소방체험 활동을 벌인 뒤 동료 학생이 소방호스를 이용해 뿌리는 물을 맞으며 시원함을 만끽하고 있다. 학교 측은 오는 18일까지 2학년 340여명 모두에게 소방체험을 시킬 계획이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수시2학기 논술 '서술형' 출제될 듯

6개대 수시1학기 분석…풀이형 수리 문제 안 내

2007학년도 수시 2학기와 정시 논술에서는 정답이 전제된 '풀이형 수리 문항'이 출제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청솔학원평가연구소에 따르면 2006학년도 수시2학기 논술고사에서 풀이형 수리문항을 출제해 개선조치를 받았던 고려대·서강대·울산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대 등 6개 대학은 2007학년도 수시1학기 논술고사에서 풀이형 수리 문항을 아예 배제하거나 출제하더라도 특정한 답이 없는 논술형을 냈다.

고려대는 수리 논술을 별도로 시행하지 않고 언어 및 수리의 통합논술로 시행했으며 문항의 서술 방식도 풀이형이 아닌 논술형이었다.

서강대는 인문 및 경상계열은 수리 문항을 아예 내지 않았고 자연계열에서는 소수의 특징에 관한 수리형 문항이 1문제 나왔는데 특정 답을 요구하기 보다는 논점을 갖고 소수의 특성에 관해 서술하는 논술형 문항이었다.

이화여대는 언어 및 수리 논술로 통합해 시행했는데 별도의 지문을 주어 일상생활과 연관된 소재를 갖고 수리 문항에 대해 서술하도록 해 역시 구체적인 답을 구하는 문항이 아닌 논술형 문항을 출제했다.

중앙대는 인문·자연 모두 수리형 문항을 사실상 배제하고 인문계는 관결에 대한 자료해석 문항을, 자연계는 도표 및 자료해석에 대한 문항을 냈다.

건국대(인문), 경희대, 성균관대(인문), 한국외대, 한양대 등은 기존의 출제경향과 유사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대학별 수시1 논술고사 변화

대학명	'07 수시1	'06 수시 2	비고
고려대(서울)	통합논술	언어논술, 수리 논술 별도	풀이형 수리 문항 배제
서강대〈자연〉	수리1문항 및 언어, 사회논술 2문항	수리형 문항 (3문제)	수리 문항 축소및 풀이형 수리 문항 배제
성균관대〈자연〉	4문제	1문제	문항수 확대
이화여대	통합논술	언어논술, 수리 논술 별도	풀이형 수리 문항 배제
중앙대(서울)	언어 및 사회 논술	언어, 수리, 사회논술	수리형 문항 삭제

광주 200실 규모 특급호텔 선다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에

市-AMJ 17일 양해각서

광주시는 오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AMJ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임광택)와 특급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 조인식을 갖는다.

지역 중견 건설사인 진흥건설의 자회사인 AMJ개발㈜은 1천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 객실 200실 규모의 특급 비즈니스 호텔을 김대중컨벤션센터 인근 2천여 평 부지에 건립할 계획이다. 준공 목표는 2008년.

시는 광주 최초의 특1등급 호텔 건립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용과 운영적자를 우려한 사업자 측은 특2등급을 선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난해 풍암동 중앙공원과 옛 광주고속 부지 등에 특급호텔 유치를 추진했으나 환경단체 등의 반발과 건립 및 운영 적자를 우려한 투자자의 포기 등으로 보류되거나 무산된 상태다.

한편 호텔 등급은 준공 후 한국호텔협회 등급평가에 따라 결정된다. 평가기준은 ▲현관·로비·복도 상태 ▲객실 수(200실 이상 만점)·면적·욕실면적 등 객실 시설▲국제회의 시설 등 10개 부문이며, 이를 총 1천 점 만점으로 평가해 900점 이상 이면 특1등급, 800점 이상 특2등급, 700점 이상은 1급으로 분류한다. 광주 지역의 경우 특1등급은 한 곳도 없으며 특2등급은 3곳, 1등급은 8곳, 2등급 이하는 9곳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기반 토플시험

내달부터 본격 실시

토플 주관사인 미국교육평가원(ETS)은 다음달 1일부터 인터넷 기반 시험인 iBT(internet-based TOEFL)를 한국에서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수험생들은 서울·부산·대구에 설치된 테스트 센터에서 응시할 수 있으며 9월 말까지는 CBT(Computer-based TOEFL)도 병행 실시된다.

iBT는 응시에서부터 채점까지 인터넷을 기반으로 실시되는 토플 시험으로 기존의 듣기와 읽기, 쓰기 외에 말하기 영역이 추가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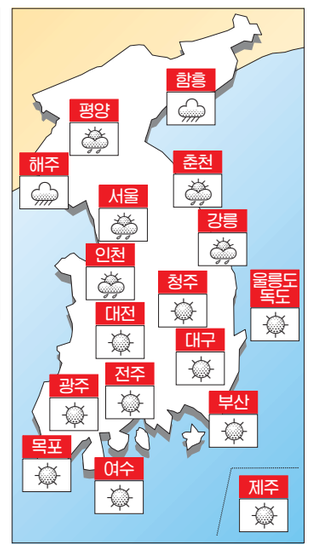
응시료는 미화 170달러(약 16만4천원)이며 수험생들은 16일부터 전화(02-3211-1233)나 한미교육위원단의 인터넷홈페이지(www.toeflkorea.or.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연합뉴스

덥다, 더워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한 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

8월 15일 (음 7월 22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조금	25~33℃
목 포	구름조금	25~32℃
여 수	구름조금	26~31℃
완 도	구름조금	25~33℃
구 례	소나기	24~35℃
해 남	구름조금	24~33℃
장 흥	구름조금	24~33℃
고 흥	구름조금	25~33℃
순 천	소나기	24~34℃
영 광	구름조금	24~33℃
진 도	구름조금	24~34℃
전 주	구름조금	25~34℃
남 원	소나기	24~34℃
정 읍	구름조금	25~34℃



서해남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m
먼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남동~남서풍 파고 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06:15 18:59 썰물〈11:24 23:55
여수 밀물〈00:37 13:23 썰물〈06:53 19:15

▲해뜸 05:52 ▲해짐 19:22 ▲달뜸 22:47 ▲달짐 12:18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날 씨						
최저/최고	24/30	24/30	24/29	23/30	24/31	23/30

무리하게 운동하면 빨리 늙는다

노화지표 '텔로미어' 짧아져

무리한 운동이 생물학적으로 노화를 촉진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대학원 체육교육과 신윤아씨는 '운동이 중년여성의 세포노화 지표인 텔로미어(telomere) 길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학위논문으로 이달 말 박사학위를 받는다.

신씨 논문의 주요 내용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운동을 실시한 결과 염색체 손상을 막아 주는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졌다는 것이다. 텔로미어는 나이가 들면서 길이가 점점 줄고 텔로미어가 짧을수록 세포는 손상과 죽음에 취약한 상태가 돼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 된다.

신씨는 "운동 경험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심한 운동을 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해 지질과산화가 늘어나고 항산화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 노화의 지표인 텔로미어가 짧아진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텔로미어(telomere)=염색체 말단을 보호하는 단백질-DNA 조립체.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점점 짧아져서 어느 한계에 도달하면 더 이상 세포분열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작용을 한다. 종말체(終末體) 또는 '생명시계'라고 부른다.

생활안내

교통안내

광주종합버스터미널	360-8114
철도안내	1544-7788
대한항공	222-2000
아시아나항공	221-6300
한국도로공사	1588-2505

상 담

- 당직변호사(15일) 정찬원 228-3500
- 법무사회 법률상담(16일) 김승연 239-1809
- 가정법률상담소 보건복지협회상록상담소 671-4050
- 광주 YWCA 527-0011
- 24시간 청소년상담 국번없이 1388
-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청 1588-0060
- 병무민원상담 광주전남병무청 1588-9090
- 소비자 상담 광주 YMCA 232-6133
- 광주 YWCA 524-5400
- 주부교실 232-0643~4
- 녹색소비자문제연구 369-9881

신 고

- 학교폭력 국번없이 112
- 전남경찰청 226-0112
- 광주지검 233-2828
- 사이버테러 (02)118
- 가정폭력 여성긴급 국번없이 1366
- 여자형사기동대 363-0155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광주아동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91
- 광주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없이 1389